

단기연수 보고서

- 차례 -

1. 연수기간
 2. 연수기관
 3. 연수목적 및 계획
 4. 연수결과
 5. 직무관련 시사점
- <붙임자료>

제 출 일 : 2010. 9. 15

제 출 자 : 양 애 경 연구위원

단기연수 보고서

1. 연수 기간

2010. 8. 5 - 9. 2

2. 연수 기관

가) East-West Center(미국) : University of Hawaii Manoa Campus

나)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일본) : 과거 일본 문부성 산하였으나, 독립행정법인화함. 사이타마현에 소재

3. 연수 목적 및 계획

가) East-West Center : 20C 초 하와이 한인여성 이민 관련, 문화유산 파악

- Center의 Research Program 일환으로 독자연구 수행 계획
- 연구계획서(기 제출) 제출
- 센터로부터 Short-term Visiting Scholar 승인(기 제출)

나) NWEC에서 개최되는 「남녀공동참획을 위한 연구와 실천의 교류추진 포럼」(8.27-29) 행사 참관

- 매년 8월 마지막 주간에 개최되는 행사
- 전국적으로 포럼에서 진행될 워크숍 주제를 공모하고, 참가희망(개인, 단체)을 사전에 접수 받아, 행사 일정을 조직함.
- 동시에 여러 주제의 워크숍이 진행되므로, 관심있는 워크숍을 골라 참관하며 자료 수집기로 함.

4. 연수 결과

가) 20C초 하와이 한인이주여성, 특히 ‘ 사진신부’ 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수행

- 하와이 한인이주 100주년(2003)을 전후하여 많은 관심이 두어졌던 20세기 초기 한인이주여성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
- UH 소재 한국학연구소 자료실 방문, 문헌자료 열람
- 하와이 한인이주여성 관련 전문가 면담 : 이덕희 선생(전 하와이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부회장)
- 연구 paper 작성(붙임 자료 1)
- Center의 Research Program 수료증 획득(붙임자료 2)

나) 「남녀공동참획을 위한 연구와 실천의 교류 포럼」 행사 참관

- 포럼의 주제: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남녀공동참획사회 만들기(붙임자료 3)
- 취지 :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을 위해, 우리 자신들의 의사로 사회에 참가하고, 사회를 활성화해 가는 과제와 이를 위한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 연구’ , ‘ 학습’ , ‘ 실천’ 을 묶어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추구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

- 참가자 : 여성단체 등의 리더, 연구자, 여성관계시설직원, 남녀공동참획, 여성교육, 가정교육 등의 행정담당자, 학생 등 1,000명 정도
- 주요 행사 일정

8월 27일(금)	8월 28일(토)	8월 29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향한 <p>메시지 :남녀공동참획사회로의 전망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관계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1 : 전국 응모(8건), 회관제공(1건), 문부과학성 제공 워크숍 진행 ▶ 교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2 : 전국 응모(8건), 회관제공(2건) ▶ 워크숍 3 : 전국 응모(12건), 회관제공(1건) ▶ 워크숍 4 : 전국 응모(10건), 회관제공(1건) ▶ 자유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5 : 전국 응모(8건), 회관제공(1건) ▶ 워크숍 6 : 전국 응모(7건), 회관제공(1건) ▶ 폐회

- 진행방법 : 동 포럼 개최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5개의 테마를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워크숍을 공모, 참가희망을 접수하여 조직함.
- 2010년의 경우 전국 응모된 워크숍이 53건, 회관제공한 것이 7건, 문부과학성 제공 1건 등, 총 61건의 워크숍이 이루어짐.
- 동 시간대에 다수 워크숍이 실시되기 때문에, 가장 관심있는 워크숍장을 찾아 자료 수집함(붙임자료 3, 4).

5. 직무 관련 시사점

가) East-West Center에서의 연구활동을 통한 시사점

- 하와이 한인여성 이민 연구를 위한 재하와이 및 한국의 여성연구자간 상호 협동연구 필요성 : 이같은 협동연구는 특히 자료접근성 및 가독성 등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것. 2018년에 이르면 한국도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완전한 다민족다인종사회로 변모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제 ‘지구촌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음. 이러한 때 불과 한세기 전 우리 역사의 경험은 많은 점들을 시사해줄 것.
- 하와이 한인여성 이민자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필요 : 해외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탐사의 일환으로 하와이에서도 34곳이 조사되었지만, 이 가운데 여성관련한 곳으로 조사된 곳은 단 1곳도 없음. 하와이 한인이주역사 중 특정 시기가 이른바 ‘사진신부’ 시기로 불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왕의 언급들에 비추어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
- 결국 여전히 우리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함. 역사를 여성에게 되돌려주고, 역사에도 여성을 되돌려주는 것의 의미를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새겨볼 필요.

나) NWECC의 포럼 행사 참관을 통한 시사점

- NWECC의 경우 이번 <포럼> 진행의 예처럼, 매년 몇몇 행사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되, 세부 주제와 운영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 조직해 나감. 이는 기관홍보는 물론 여

성현안에 관한 여론 환기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방식임. 즉,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행사인 만큼 관심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사전 준비와 참여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 각종 여성현안을 둘러싸고 일반 여성대중, 관련전문가, 공무원들을 networking하는 데 있어, 여성전문기관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실례임.
- 행사의 성격은 다분히 사업성이나, 여성정책연구의 현장 활용성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원으로서의 벤치마킹을 시도해볼 만 함. 특히 사업적 성격을 포함한 과제이거나, 관계망형성이 관건인 과제의 경우 시험적으로 원용해볼 필요 있겠음.

<붙임자료 1 : 연구결과>

1910-1924년 시기 이른바 하와이 한인 사진신부(Picture Brides)와 관련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양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약 1,000명 내외였다는 사진신부의 숫자, 사실일까?

공식적으로 하와이에 처음 한인이 이주한 것은 1903년 1월 13일의 일로, 이날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102명이 바로 그들이었다. 미국 이민국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들 102명 가운데 여성은 남편을 따라 왔거나 또는 남편없이 자녀만을 데리고 온 경우로, 그 수효는 대략 13% 미만이었었던 것 같다. 이후 일본의 제지로 이민이 중단된 1905년 7월까지 총 65척의 선편으로 하와이에 들어온 한인들은 모두 7,226명에 달했으며, 이 중 여성은 637명이었다고 한다. 어린이 541명을 제외하면 6,048명이 곧 남성인 셈이다.

1903-1905년간 하와이 한인이주자들이 아이들을 제외한 남녀간 성비가 거의 10:1이었다는 점은 이제까지 중요하게 강조되어왔다. 이로써 2기 이민이 시작된 1910년 이후 다시 동양인이민 규제에 의해 이민이 중단된 1924년에 이르기까지 15년간 이 시기 이민을 특징짓는 뚜렷한 흐름으로서 이른바 ‘사진신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설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하지 못한 한인남성이 늘어나자, 본국으로부터 결혼할 여성들을 데려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로서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중요한 매개 수단은 당연히 사진 외 달리 다른 방도는 없었을 터, 사진신부라는 말이 나오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1910-1924년간의 하와이 한인이민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기 사진신부의 숫적 규모는 일정하지 않다. 500명이 채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미국인구센서스에 근거하여 1,115명(전창성, 2001)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는 1,000명 내외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1,000명 내외라는 사진신부의 숫적 규모는 당시 하와이 입국을 위한 여권발급자 수가 불과 1,930여명 정도임을 고려하고 보면, 놀라운 숫자일 수 밖에 없다. 1910년 강압적인 한일합방 이후 하와이행에 필요한 여권발급을 일본이 주관함에 따라, 일본이 하와이행을 원하는 한인에게 발급한 여권발급 상황을 통해 당시 하와이 이주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물론 당시 관련 자료를 보면, ‘재입국’에 의해 발급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를 제외하면 이주를 위한 여권 발급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므로 사진신부로 여겨져온 여성이주자들의 규모가 보다 두드러져 보일 것은 분명하다. 1910-1924년간의 하와이 한인이주를 ‘사진신부’로 특징지어온 이제까지의 언급들은 아마도 이같은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과연 이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정말로 이 시기에 하와이에 온 이민자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고, 또 그들 대부분이 사진신부였을까? 또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신랑들은 거의 중 늙은이에 가까울 정도로 나이 차이가 컸을까? 이 글은 이런 점들에 관해 의문을 제기해본 글이다. 이제까지 사진신부의 숫적 규모를 둘러싼 편차도 너무 큰 데다, 무엇보다 당시 이주해온 여성들 대부분이 사진신부였다는 근거도 명확치 않은 탓이다.

2. 1910-1924 한인 하와이 여권발급 상황에 대한 시험적 검토 : 사진신부의 숫자나 신랑들의 나이가 너무 부풀려졌을 가능성 있음.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 외무성 등의 자료로부터 정리된 1910-1924년 시기 일본이 한인에게 내준 하와이 여권발급상황 자료로부터, 사진신부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까를 추정해보는 것으로 했다. 동 자료에는 여권에 기재된 이름(영, 한문)과 여권을 신청한 사람의 이름(영, 한문) 및 관계, 거주지, 여권발급일, 기타사항 등 6가지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부인’ 과 같이 관계란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여권발급자의 성별이나 여권신청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단지 ‘부인’ 이라는 기록만으로는 해당 여성이 신청자의 사진신부인지, 아니면 본국에 두고 왔던 원 부인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1910-1924년간의 동 자료를 1903-1905년간의 초기 하와이한인 이주자 명단으로 정리된 자료와 함께 견주어보기로 했다. 후자의 자료에는 이주자의 이름(영문), 나이, 혼인 및 배우자여부(기. 미혼, 홀아비), 최종거주지, 입국연월일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자료를 함께 놓고 검토하면, 전자에 기재된 ‘부인’ 의 실체에 보다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여권신청자가 후자에서 확인되는 경우, 그의 혼인 및 배우자 상태로 미루어 그가 여권신청한 ‘부인’ 이 사진신부인지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903-1905년 입국자명단에서 ‘미혼’ 으로 기록된 남성이 여권신청한 여성은 사진신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또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이름과 거주지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추측할 뿐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며, 두 자료에서 동시에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남성들의 부인인 경우는 더더구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으로나마 자료를 여과하는 편이 사실에 더욱 가까운 결론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두 자료를 견주어보는 과정에서 자료로서의 신빙성을 보다 높이 산 자료는 전자였다. 이는 전자의 경우 이름으로 영문과 한문을 동시에 표기하고 있어, 영문만으로 기재된 후자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두 자료에 담긴 이주자들을 모두 견주어보고 이 글을 준비하기에는 주어진 기간이 턱없이 짧아, 전체 자료 중 극히 일부만을 시험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바탕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는 이 글의 내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한계와 전제들 하에, 전자의 자료에 담긴 총 1,933명의 여권발급자 가운데 첫페이지에 나오는 55명에 대한 관련사항을 후자의 자료에서 비교검토한 결과로부터 모아진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55명의 여권발급자 중 사진신부로 추정되는 여성은 적게는 3명에서 아무리 많아도 23명을 넘지 않는다. 즉, 전자의 자료에서 맨 앞쪽에 나오는 55명 여권발급자의 여권신청인을 후자의 자료에서 확인한 결과에 근거하여, 동 여권발급자와 여권신청인과의 좀더 자세한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근거	사례	수(명)
사진신부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부인이라며 여권신청한 남성의 최초 입국 기록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이미 결혼한 부인인지 아니면 결혼하기 위한 신부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음	□1913 2월에 여권발급받은 김신실의 여권신청인 안치선은 1903-1905년간의 이민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음	14

사진신부이거나 또는 이미 결혼한 부인일 수 있음	- 여권신청인의 최초 입국 기록에 의하면, ‘ 홀아비(widower)’ 로 되어 있어 사진신부일 수 있음. - 그러나 유배우기혼자이면서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없지 않아, 이 경우에는 이미 결혼한 부인의 이주여권을 신청한 것일 수도 있음	□1912년 4월에 여권발급받은 이정성의 여권신청인 안원규는 1903년 입국기록에 26세의 홀아비로 되어 있어, 사진신부일 가능성 있음. □김애신의 여권신청인 채수보는 1905년 입국명부에서는 ‘ 홀아비’ 로 되어 있음. 그러나1912년 9월에 아들(s)로 보이는 채성윤과 부인으로 기재한 김애신이 함께 여권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수보는 ‘ 홀아비’ 가 아닌 유배우기혼자이며, 김애신은 그의 처일 가능성 높음	6
가장 분명한 사진신부일 수 있음	- 여권신청인의 최초 입국기록에 의하면, ‘ 미혼(single)’ 로 되어 있어 결혼을 위한 신부의 여권을 신청했을 가능성 높음	□1918년 7월에 여권발급된 박제옥의 여권신청인 안정순은 1904년 입국당시 17세의 미혼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진신부일 가능성 높음.	3
이미 결혼한 부인일 수 있음	- 최초 입국 기록에 ‘ 기혼(married)’으로 명시된 남성이 여권신청하여, 그의 부인일 가능성 높음 - 자녀를 동행하는 경우는 더욱 분명해짐.	□1913년 1월에 여권발급된 김정혜의 여권신청인 안치운은 1904년 입국 당시 22세의 기혼자로 되어 있어, 김정혜는 그의 처일 가능성 높음	9
여권신청인의 재입국 여권임	- 여권신청인의 최초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특기사항에 재입국 여권임을 의미하는 ‘ Re’ 명시되어 있음.	□1923년 4월에 ‘ 재입국(Re)’으로 여권발급된 안교점은 1905년의 입국기록에 의하면 부인이나 자녀 등 일가가 함께 이주함.	19
가족(부모나 자녀 등) 동반을 위한 여권임 기록이	- 관계란에 어머니라든가 아들 등의 관계를 명시하여 분명함.	□1914년 1월에 발급된 정씨의 여권신청인은 아들인 안원규임	3
불분명하여 전혀 알 수 없음	- 여권신청인의 이름이 불분명하여 자료를 견주어볼 수 없음	□1913년 7월에 여권발급된 황경의 여권신청인은 이름이 불명확하여 초기이민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없음	1
계			55

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1910-1924년간의 하와이 한인여성이주자들 가운데 사진신부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경우, 사진신부의 규모에 관한 기존의 주장들 가운데 약 700명 가까이로 파악한 이덕희(2003)의 판단에 가장 가까운 수치가 산출되긴 하나, 이는 전체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실제에 비해 사진신부의 숫자가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점은 제기해볼 만 하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사실보다 규모가 부풀려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점이 바로 앞서의 시험적 검토만으로도 발견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으로, 다음의 두 번째 내용이다.

둘째, 1903-1905년간의 초기이주자 대부분이 ‘ 결혼하지 않은 20대 남성’ 이어서 1910-1924년간의 사진신부 수요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기존의 일반적인 언급 또한 사실을 과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다. 이 부분 역시 이덕희(2003)에 의해서 이미 지적되었지만, 본고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앞서의 여권발급자 55명의 여권신청인 가운데 1903-1905년간의 초기 이주기록이 확인된 20대 남성 14명 가운데 미혼은 단지 1명일 뿐이었다. 나머지 13명 중 8명은 유배우기혼(married)이었고, 다른 5명은 홀아비 즉, 무배우기혼(widower)이었다. 사실 조혼이 일반적이었을 당시 풍습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셈인데, 20대가 미혼인 게 보통인 현대의 눈으로 지레짐작한 결과가 빚어낸 과장인 게 아닌가 싶다.

셋째, 사진신부를 기다리고 있던 신랑들이 ‘중 늙은이’ 일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는 기왕의 언급들 또한 과장되었을 수 있겠다는 점이다. 당시 사진결혼한 부부들의 평균 연령 차이가 약 15세 정도였다는 자료도 있거니와, 이같은 심한 나이 차이는 흔히 사진신부들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55명 중, 사진신부임이 분명해 보이는 3쌍의 경우 신부의 나이는 명시하지 않아 알 길이 없지만 신랑의 나이는 최초 입국시의 기록으로 미루어 추정이 가능한데, 각각 29세/31세/32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나이라면 결코 ‘중 늙은이’라 할 수는 없겠기로, 사진결혼한 부부들의 나이 차이 또한 너무 과하게 표현되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 우리와 비슷하게 사진신부를 통한 결혼이 성행했다는 당시 하와이내 일인사회에서는 나이 차 등을 이유로 한 이혼이 사회문제화된 데 비해, 한인사회에서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심각하게 문제화되지는 않았던 점으로도 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와이로의 이주역사가 우리에게 훨씬 앞선 일인사회에서는 어쩌면 사진결혼에서의 나이 차 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나가며 : 20C초 하와이 한인여성 이민 연구와 관련한 몇가지 제안

이상에서 한인의 공식적인 해외이주 역사를 연 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역사에서 여성이주자, 특히 1910-1924년간의 소위 사진신부와 관련한 몇가지 의문점들을 제시해보았다. 본고는 극히 제한된 짧은 시간에 제한된 자료에 의존한, 따라서 내용의 정합성을 지적받더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겠다. 다만 그나마 본고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들로부터, 차후 이와 관련한 보다 생산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고대하면서 몇가지를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하와이 한인여성 이민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해본다. 이를 위해서 재하와이 및 한국의 여성연구자간 상호 협동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이같은 협동연구는 특히 자료접근성 및 가독성 등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다. 2018년에 이르면 한국도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완전한 다민족다인종사회로 변모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제 ‘지구촌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이러한 때 불과 한세기 전 우리 역사의 경험은 많은 점들을 시사해줄 것이다.

둘째, 하와이 한인이주 관련 각종 기초자료에 대한精緻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예컨대 본고가 시험적으로 검토한 1903-1905년간의 초기이민자명단 자료라든가 1910-1924년간의 여권발급자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도 생산하고 자료대조를 통한 오류도 찾아내는 등 보다 분석적으로 검토한다면, 초기 이민자들을 둘러싼 실상이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사편찬위나 독립기념관, 교육부 또는 문화관광부, 국제교류재단 등 하와이

한인이주와 관련된 많은 정부기관에서 여성이주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하와이 한인이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들에서 여성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시선을 느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해외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탐사의 일환으로 하와이에서도 34곳이 조사되었지만, 이 가운데 여성관련한 곳으로 조사된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조사 유적지 설명으로 여성관련한 내용도 당연히 전무하다. 10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역시 여성관련 의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와이 한인이주역사 중 특정 시기가 이른바 ‘사진신부’ 시기로 불렸다는 기왕의 언급들에 비추어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다. 여전히 우리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역사를 여성에게 되돌려주고, 역사에도 여성을 되돌려(G. 러너) 주는 것의 의미를 모든 역사 관계자들이 함께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이덕희(2003),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 M&B.
- 하와이 한인이민90주년 기념사업위원회(1993), 「THEIR FOOTSTEPS 그들의 발자취」
- 문화관광부. 독립기념관. 한국근현대사학회(2002), 「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 웨인 패터슨(저), 정대화(역)(2002), 「아메리카로 가는 길」, 들녘.
- www.koreacentennial.org/passlist.pdf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 www.koreacentennial.org/passport.pdf "Passports Issued to Koreans in Hawaii, 1910-1924"
- 김점숙(2003), “ 미주 한인 이민사 자료의 현황과 수집방안” , 「한국사론 39:미주지역 한인이민사」 .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홈페이지, “ 한인미주이민의 역사와 발전”
- 전창성(2001), ‘ 한국인의 초기 하와이 이민연구(1903-1924)’ , 관동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 Mary Adamski, "A Better Life", Honolulu Star-Bulletin Hawaii News:2003-1-12.
- <http://www.koreatimes.com/article/print/107385>
- <http://mkeh.incheon.go.kr/icweb/html/web63/063002001002.html>
- <http://www.joongang.ca/bbs/board.php>
- <http://sbook.co.kr/view.html>
- <http://www.alohakorea.com/board.php>

On Several Questions for Korean 'Picture Brides' in Hawaii during the Period 1910-1924

Aigyung Yang(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irector of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Research Fellow)

1. Introduction: Is it real that the number of 'Picture Brides' reached around 1,000?

The first official immigration of Koreans to Hawaii was dated back to January 13th, 1903 with 102 people arriving at Honolulu Harbor. So far as known by U.S. immigration office records, the female ratio marked 13% or less among these 102 people, most of them followed their husbands or brought their children only. Until Japanese restriction stopped immigration on July 1905, the total of 7,266 Koreans immigrated to Hawaii by 65 ships, including 637 women. That is, except for 541 children, the number of men makes 6,048.

The fact that the gender ratio of Korean immigrants to Hawaii besides children reaches almost 10:1 has been emphasized importantly, since it could explain the main reason for so called 'Picture Brides', the distinguishing state to characterize the immigration feature during the 15 years since 2nd period immigration started in 1910 until Asian immigration were restricted in 1924. That is, the serious imbalance of gender ratio increased the number of unmarried Korean men and they could not but bring their brides from their mother country. It is obvious that the most important media for marriage remained picture only, which created the new word 'Picture Bride'

It is not certain for the number of these 'Picture Brides' on most references related to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during 1910-1924. The claims vary from less than 500 to 1,115 (Jeon Chang-Sung, 2001) based on U.S. population census, yet general agreements mentions around 1,000 people. This number of around 1,000 Picture Brides is surprising considering the number of passport issued to enter Hawaii marks only 1,930 total. This number of around 1,000 Picture Brides is surprising considering the number of passport issued to enter Hawaii marks only 1,930 total. Since Japanese forced annexation of Korea in 1910 Japan controlled issuing passports for Hawaii, and the passport issued for Korean is the clue to judge the immigrants situation to Hawaii. The references for the period shows quite a number

of people issued for 'Re-entry, and it is clear that excluding this number reduces the passport issued for immigration to make the number of female immigrants considered to be Picture Brides more noticeable. These became the circumstances for reference so far to name the Korean immigrants to Hawaii during the period 1910-1924 as 'Picture Brides'.

However, does this correspond to the historical fact? Is it true that majority of the immigrants to Hawaii during this period were female, and most of them were Picture Brides? Also, is it true that their grooms were so old compared to the brides? This study is to question on these points. It is because that the numbers of Picture Brides are so widely different and most of all there is no certain clues to tell most of the female immigrants during this period were actually Picture Brides.

2. Examination on situation for 1910-1924 Korean passport issued to Hawaii : Possibilities for exaggeration on the number of Picture Brides or the age of groom

As mentioned above, the study planned to estimate the numbers of Picture Brides based on the references from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Japanese passport issue status for Hawaii to Koreans during the period 1910-1924. The reference reveals 6 status including passport holder's name (in English and Chinese character), passport subscriber's name (in English and Chinese character) and relationship, residence, date of issue, and other notes. The relationship status written for example as 'wife' tells the passport holder's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the subscriber. The problem here is, with the written fact as 'wife' only does not clarify whether the female mentioned is the picture brides of the subscriber or his wife who had been left in the mother country.

For this, the study proceeded to compare the reference with other data that listed the names of early Korean immigrants to Hawaii during 1903-1905.

This method might contain problems too. Identified as same person from the name and residence could be different people in fact, and also it is difficult to assume exactly on the wives of male immigrants who do not appear on both reference. Yet this method is sure to narrow down the data and lead to conclusion one step closer to the reality. While comparing the two, the data with higher credibility was the first reference. It is because the first reference writes the names both English and Chinese character which enables better preciseness than the latter with English names only.

Lastly, the given period for this study was too short to compare all the immigrants from the two references, and thus the study clarifies again that it is based on examining only a part from the whole data. This means that the contents of the study should be quite limited. Under these limitations and premises, the study examined the 55 people listed on the first page of 1,933 who issued passport in the first reference in comparison with the second data, with the result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icture Brides or presumed as so among total of 55 who issued passport revealed to be as low as 3 or up to no more than 23. Based on the cross checking the subscribers for the first 55 who issued passport from the first reference with the second data, more precis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sport issued and subscribers are as below;

Category	Presumption Basis	Sample Case	Number of People
Not clear whether to be Picture Bride or not	- The male passport subscriber for his wife does not have first entry record, and there is no basis to tell the wife is already married one or to get married	<input type="checkbox"/> The subscriber Ahn, Chi-Seon for Kim, Shin-II who issued passport on February 1913 is not found on immigrants list during the period 1903-1905	14
Apparent to be either Picture Bride or already married wife	- The first entry record of the passport subscriber says ' widower' so the newly issued is possible to be a Picture Bride - Some married with a spouse happen to be written as widower; for this case he could have subscribed for the immigration passport of the already married wife	<input type="checkbox"/> The subscriber Ahn, Won-Gyu for Lee, Jeong-Seong who issued passport on April, 1912 is described as a 26-year-old widower, so the newly issued is possible to be a Picture Bride. <input type="checkbox"/> The subscriber Chae, Soo-Bo for Kim, Ae-Shin is described as ' widower' on immigration list 1905. Yet based on the fact that Kim, Ae-Shin described as a ' wife' and Chae, Sung-Yoon a probable son of his issued passport together on September 1912, Chae, Soo-Bo should be married with spouse not ' widower' as written, with high possibility of Kim, Ae-Shin to be his married wife	6

Very likely to be a Picture Bride	- The first entry record of the passport subscriber says ' single' so he is likely to have subscribed for the bride-to-be	<input type="checkbox"/> The subscriber Ahn, Jeong-Soon for Park, Je-Ok who issued passport on July 1918 is described as a 17-year-old ' single' , so the newly issued is possible to be a Picture Bride	3
Very likely to be already married wife	- Passport issued by male subscriber with the first entry record to be ' married' is likely for his already married wife - More clear when accompanying children	<input type="checkbox"/> The subscriber Ahn, Chi-Woon for Kim, Jeong-Hye who issued passport on January 1913 is described as a 22-year-old ' married' , so Kim, Jeong-Hye is likely to be his married wife	9
Re-entry of the passport subscriber	- The first entry record of the passport subscriber is whether found or not found. - Additional notes marked ' Re' to signify re-entry passport	<input type="checkbox"/> Ahn Gyo-Jeom who issued ' RE' -entry passport in April 1923 is immigrants with family including wife or children as described on the entry record on 1905.	19
Passport for accompanied family passport	- The relationship is clearly described as mother/son, etc.	<input type="checkbox"/> The subscriber of Ms. Jung who issued passport on January 1914 is her son Ahn, Won-Gyu	3
Record unclear for any case	- The name of the passport subscriber is unclear to compare the references.	<input type="checkbox"/> The name of subscriber for Whang, Gyung who issued passport on July 1913 is not clear and unable to cross check with early immigrants list	1
Total			55

To tell the approximate number of Picture Brides among Korean female immigrants to Hawaii during the period 1910-1924 based on the result above, the closest assumption among the existing study is by Lee, Duk-Hee(2003) to be around 700 people; yet it is not possible to simply declare so until comparing the total data one by one. Still it is worth to bring up that the number of Picture Brides used to be exaggerated too much.

Then, what is the background for the numbers so exaggerated? The possible reason could be found by previous examination too, as follows in the second remark.

Second, the existing comments are likely to be exaggerated referring that since most of the early immigrants during 1903-1905 were 'unmarried male in 20's' it is inevitable to be in need of Picture Brides. As already pointed out by Lee, Duk-Hee(2003), this aspect is also appeared in this study too. Reviewing the subscribers above for 55 who issued passport, 14 male subscribers in their 20's are

appeared in early immigrants list, and only 1 of them is described as unmarried. Among the other 13, 8 male subscribers were married with a spouse, and other 5 were widowers. It is quite natural phenomenon considering the early marriage customs of the days, while modern eyes in familiar with more singles in their 20's might have felt different to exaggerate the fact.

Third, the existing opinions saying that the grooms waiting for Picture Brides were so old as to be 'middle-aged or even older' is possible to be another overstatement as well. Some references show that the average age difference between Picture Brides and the grooms were around 15 years, and it is true that this age gap was often cited to describe and maximize the desperate status of Picture Brides. Among the above 55, the 3 most likely to be Picture Brides are not contain of their age, yet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groom's age from the first entry records that they are appeared to be 29/31/32 years old per each. The age is clear to be far from 'middle-aged or even older', and thus the existing comments on their age gap are likely to be exaggerated. The Japanese society in Hawaii where Picture marriage was said to be popular actually experienced the social issues of divorce for the age gap; the fact Korean society had worries only and no serious problems occurred backups the assumption as well. The Japanese society with longer history for immigration to Hawaii is more likely to suffer more for the age difference of Picture Bride couples.

3. Final : Suggestions on studying early 20th century Korean female immigrants to Hawaii

The early 20th century Korean immigrants to Hawaii started the history of Korean official overseas immigration, and the study has examined some questions for so-called 'Picture Bride' among the female immigrants during the period 1910-1924. It is no doubt that this study is from so limited time and reference that the contents may leave some on correctness. Looking forward to further studies on this subjects, here are some suggestions and opinions occurred while preparing the study;

First, I do look forward to find more vigorous studies on Korean female immigration to Hawaii. For this I suggest the mutual cooperation and research between female researchers in both Korea and in Hawaii. These cooperative

researches will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reference accessibility and legibility. Not to mention the media reporting that Korea will experience population decrease while transformed into multi-rational heterogeneous society, the expression 'Global Village Family' became not strange any more. The studies on our historical experiences during last century will teach us a lot.

Second, I expect more precise and accurate examination for several basic references on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For example, references on early immigrants list during the period 1903-1905 or passport issue during 1910-1924 examined here above require more analysis by precise statistics with error cross-check to reveal more actual circumstances around the early immigrants.

Third, I expect more special interests from more government organizations related to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for exampl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n Foundation. I could not find special attention on female immigrants among commemorative project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34 spots in Hawaii were examined for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site exploration, yet not a single research was related to females. Neither exist the female related contents on site explanation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did not contain any female related agenda at all. It is beyond understand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a certain period in Korean immigration history to Hawaii is called as 'Picture Bride' period. These circumstances show that our history is still centered to male only. We need to keep the meaning or 'Bring the history back to women, and bring women back to history' (G. Lerner) together with all related to history.

Works Cited

Lee, Duk-Hee (2003), <One Hundred Years of the Korean Immigrants in Hawaii>, JoongAng M&B

9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in Hawaii Memorial Commetee(1993), <THEIR FOOTSTEPS>

Ministry of Culture,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e Association for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2002), 「Historical Site Condition of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Site」 II .

Wayne Patterson, translated by Jung, Daewha (2002),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Dulnyouk Publishing Co.

www.koreacentennial.org/passlist.pdf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www.koreacentennial.org/passport.pdf "Passports Issued to Koreans in Hawaii, 1910-1924"

Kim, Jum-Sook(2003), " Historical Reference Status on Korean Immigration History to America" <Korean History 39: Korean Immigration History to America>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website, "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Korean Immigration in America"

Jun, Chang-Sung(2001), ' Study on Early Korean Immigration in Hawaii(1903-1924)' , Kwandong University, Master' s Thesis(Inedited).

<http://www.koreatimes.com/article/print/107385>

<http://mkeh.incheon.go.kr/icweb/html/web63/063002001002.html>

<http://www.joongang.ca/bbs/board.php>

<http://sbook.co.kr/view.html>

<http://www.alohakorea.com/board.php>

<붙임자료 2 : East-West Center Research Program 참가확인서>



The East-West Center recognizes

Ai Gyung Yang

VISITING SCHOLAR
with the
RESEARCH PROGRAM

August 5 – August 25, 2010

for advancing the goals of the East-West Center
to strengthen relations and understanding
among the peoples and countries of East and West

Presented in Honolulu, Hawai'i

Nancy D. Lewis
Director of Research

Charles E. Morrison
President

NWEC 포럼

女性のエンパワーメントと
男女共同参画社会づくり

男女共同参画のための研究と実践の交流推進フォーラム

8 / 27 (金)

28 (土)

29 (日)

◆シンポジウム 27日(金) 13:00~15:00

未来へのメッセージ
～男女共同参画社会への展望
一歩先に進むための関係づくり～

奥山 恵美子 山崎市長

西郷 真理子 (株)まちづくりカンパニー代表取締役

廣瀬 隆人 早稲宮大学生涯学習教育研究センター副センター長・教授

◆ワークショップテーマ

- ① 女性のキャリア形成への取組
- ② 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
- ③ 安全・安心と男女共同参画
- ④ 地域の活性化と男女共同参画
- ⑤ 男女共同参画の拠点づくり

緑豊かな又エックの夏のフォーラム
ご参加お待ちしております

◆交流推進プログラム

- ・モーニング・アクティビティ
- ・アフタヌーン・コンサート
- ・ナイト・レクチャー

◆情報交換・交流の場

- ・さんかくカフェ
- ・情報のひろば
- ・又エック・マルシェ

独立行政法人国立女性教育会館

〒355-0292 埼玉県比企郡嵐山町菅谷728番地
TEL : 0493-62-6724 ・ 6725
FAX : 0493-62-6720
URL: <http://www.nwec.jp/>
E-mail: progdiv@nwec.jp

<붙임자료 4 : NWEC 포럼 수집자료>

獨立行政法人 國立女性教育會館, 「NWEC 포럼 2010」.
NHK 아카이브스 2010 : 女性のための 아카이브스.
東京男女平等條例 네트워크,
“ 東京男女平等條例と據點施設” -指定管理制度をめぐって-.
아시아女性資料센터, 「女たちの21世紀」: 젠더から見る住まい. 居住權.
아시아女性資料센터,
「女たちの21世紀」: 朝鮮強制併合100年-脱植民地主義의 페미니즘을 さぐる.
아시아女性資料센터,
「女たちの21世紀」: 子ども. 家族支援に 젠더公正의 視點を.